

'임진왜란 웅치 전적' 사적 지정 기념행사

문화재청·전북도·진안군·완주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유공자 표창 등 진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 진안군(군수 전춘성), 완주군(군수 유희태)과 함께 27일 오후 3시 전라감영지(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임진왜란 초기(1592년 7월)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 및 의병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전한 국난 극복의 전적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웅치'는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 고갯길의 지명으로, 웅치 일대의 옛길은 전주와 전라도 동부지방인 진안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진안을 거쳐 전주를 공격하여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자 했던 왜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웅치 전투를 통해 지켜낸 전라감영지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행사는 국악예술단 노리광대의 사물놀이 및 북 공연을 시작으로 이재운 교수(전주대학교,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장)의 강연, 사적 지정 경과와 보존·활용방안 보고(전라



27일 열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지정서를 들여 보이고 있다.(왼쪽부터 전춘성 진안군수, 문화재청 이종훈 문화재보존국장, 전북도 김중훈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북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및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영화 '한산'에서 웅치전투의 의병장 황박 장군 역할을 했던 배우 이준혁 씨를 명예지킴이로 위촉했다.

문화재청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극복의 계기를 마련한 임진왜란 웅치 전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완주군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JB DREAM GALLERY 초대전

최보미 작가 'Das bin ich(이게 나야!) 주제 개최

전북도 서울장학숙(원장 김관수)의 JB DREAM GALLERY에서 새하기를 맞아 새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최보미 작가이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Das bin ich(이게 나야!)'다.

최보미 작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일기를 쓰며 쌓여있는 화를 담아두기도 하고 즐거운 순간의 사진을 찍어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그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은 그들 자신이 될 수도 타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나는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감정들을 나만의 캐릭터들로 만들어 그들에게 이름과 이야기를 만들어 주고 기록하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것들은 점점 모여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은 곧 '나'가 된다"고 했다.

독일 뮌스터 국립조형예술학교를 졸업하고, Prof. Andreas Koepnick으로부터 마이스터 슬러를 사사한 작가는 디자인, 회화 등 다수의 프로젝트와 개인작업 및 아트 브랜드 슈네스베터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활동 중이다. 독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의 역동감 넘치는 그림은 JB DREAM GALLERY를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한편, 서울장학숙은 점차 이 나라의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성금과 도비를 투자해서 마련한 기숙사이다. 1992년 개관 이래 4,600여명의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은 360여 재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겸비를 위한 문화 북 카페 갤러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1층 로비에 있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공간에 전시작품 30점 이상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꾸미고, 도서 8천 권 이상을 함께 비치하고 있다. 그 이름은 JB DREAM GALLERY이고, 벌써 3년이 되었다. /김재훈 기자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 전국대회 출품작 공모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유라)는 오는 4월 27~29일 3일간 '제24회 전국한지공예대전'에 출품할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한지공예대전은 한지공예를 통해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지공예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모 분야는 △전통(지호, 지승, 색지, 지장, 지화, 부채, 수묵지 등) △현대(한지조형, 의상, 닥종이인형, 한지그림, 한지부조, 한지등, 낙화등) △문화상품 및 기타(문화상품, 민화를 응용한 한지공예, 창작한지, 응용한지) 등 총 3개 부문이다.

대상에게는 국회의장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3,3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입선작 이상은 5월 15~28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그동안 한지공예를 사랑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온 많은 작가들이 출품작 공모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행사에 전국의 많은 한지공예인들이 참여해 행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cc.or.kr) 또는 전주한지문화축제 누리집(jjhanji.or.kr), 또는 전화한지진흥팀(063-281-1637, 1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박물관'이라는 주제에 맞춰 대학과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102개 대학박물관 회원관 중 전주대 박물관을 비롯해 1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날 박물관에 따르면 2018년~2021년에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소외계층에게 평등한 교육 혜택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전시와 연계한 체험 및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문화공정으로부터 우리 고유 복식인 한복문화를 지키고 일상 속 한복 문화의 확산을 위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복식유물 2,500여 점으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대학 내 문화기반 시설을 활용해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콘텐츠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네마프로젝트 10주년 특별전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공개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 10주년 기념 특별전 '전주시네마프로젝트: 프로듀서로서의 영화제' 상영작을 27일 공개했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저예산 장편영화 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2014년 시작해 그간 국내·외 독립·예술영화 33편에 제작 투자한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별전은 전주프로젝트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33편의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 중 초·중기 영화 10편을 상영할 계획이다. 18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최대 화제적인 이창재 감독의 '노무현입니다'와 제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수상작 '이사도라의 아이들(다미앙 매니블)' 등 관객과 평단의 지지를 얻은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린다. 이와 함께 10주년 기념 책자 '전주시네마프로젝트, 프로듀서로서의 영화제

를 꿈꾼 10년'도 발간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초대 프로그래머이자 디지털 삼인삼색을 기획한 정성일 영화평론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발족한 김영진 전 수석프로그래머와 이상용, 장병원 전 프로그래머가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프로젝트에 함께한 프로듀서와 감독들의 소회,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성취와 개선 방향을 담았다. 또한 국내·외 영화평론가들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 33편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비평이 수록된다.

이 밖에도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탐구하고, 프로젝트에 함께한 국내·외 감독들이 모여 이 시대에 독립·예술·실험영화를 창작하는 과정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10주년 특별전을 총괄하는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이번에 준비한 특별전이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나아가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